

# 2주새 강한 태풍 3개나... '하이선'도 온다

<제10호 태풍>

### '바비' '마이삭' 이어 10호 발생 기상청, 7일 가장 근접 전망 "북상 과정서 세력 키울 것"



월대천 범람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제주를 강타한 2일 제주시 월대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상규기자

제8호 태풍 '바비'와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발생하면서 제주가 연이어 태풍의 영향권에 놓일지 관심이 쏠린다.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태풍이 우리나라 남단을 향할 경우 제주는 2주일 사이 연달아 태풍 3개의 타격을 받게 된다.

기상청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지난 1일 오후 9시쯤 괌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2일 발표했다. '하이선'은 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괌 북서쪽 약 740km 해상에서 시간당 36km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하이선'은 현재 중심기압 990hPa에 중심부근 최대 풍속 초속 24m, 강풍반경 250km에 이른다. 지금은 강도를 분류할 수 없는 소형 태풍이지만 북상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세력을 키울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태풍 하이선이 오는 5일 오전 9시쯤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1020km 부근 해상으로 진출할 때 중심기압 940hPa에 중심부근 최대 풍속 초속 47m, 강풍반경 400km에 달하는 강도 '매우 강'의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이 발표한 이동 경로에 따르면 태풍 하이선은 7일 오전 3시쯤 제주와 가장 근접한다. 이 때 태풍 하이선의 강도는 '강'으로 예상됐다.

단,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고 제주에 가장 근접했을 때 태풍 하이선

과 제주와의 거리는 280km에 이르는 등 폭풍 반경에선 벗어나 제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능성이 어려운 상태다. 기상청은 오는 4일쯤 태풍 하이선의 한반도 영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태풍이 제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 제주를 지난달 26일 태풍 '바비', 뒤이어 1주 일만에 강타한 태풍 '마이삭', 태풍 '하이선'까지 2주일 사이 강도 '강'

이상의 태풍을 3번 겪게 된다.

한편 강도 '매우 강'의 태풍 '바비'가 제주에 영향을 줄 당시 도내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고, 교통 신호등이 파손됐으며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는 등 220여건의 태풍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 동쪽에서 확장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 '바비'가 예상보다 서쪽으로 치우쳐 제주를 지나가면서 제주에 분 강풍이 역대급 수준은 아니었다. 이상민기자

## 거짓 진술·불법 영업에도 손해 청구 미온적

### 코로나19 지역확산 원인 제공 목사부부·게스트하우스 대상 지역경제·추가 확진 등 피해도 '구상권 청구 신중 검토'

숨겼다가 부부의 휴대전화 GPS(위성위치 확인 시스템) 추적을 통해 뒤늦게 방문 이력이 확인된 곳이다. 지난 달 23일 방문 이후 이들 부부 이외에 추가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도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 이들 부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지시했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자료 조사 중이라는 내용만 전달할 뿐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한 게스트하우스 관련 확진자도 7명에 이른다. 지난 달 24일 수도권을 다녀온 게스트하우스 운영자(36년 확진자)와 직원(37년 확진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최근 3일간 20명 안팎의 투숙객들과 야간 파티를 연 것으로 도 방역 당국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불법(식품위생법 위반) 야간

파티를 하면서 추가 확진자 발생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따른 방역당국에서의 법적 제재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도 민사회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제주도 방역당국 대응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목사부부와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등에 대한 고발 조치는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신중하게 결과를 보고 결정할 사항"이라며 "발생과 피해 결과에 대한 상판정 등의 종합적인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 규모는 65억원 상당이다. 서울시도 1100명 이상의 집단감염에 따라 해당 교회에 조만간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백규탁기자

### 관광사업체 방역체계 "양호" 도내 652곳 특별 현장 점검

제주지역 관광사업체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과 방역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관광사업체 총 652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특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 점검은 지난 달 27일부터 29일까지 이뤄졌다.

점검 결과, 도내 관광사업체들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과 자체 방역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사업체가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매일 객실 및 사업장의 방역과 환기를 실시하고 있다. 주 2회 로비와 복도 등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A유원시설의 경우 사전예약제 운영과 함께 동시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있고, B유원 시설은 락카 배정 시 일정 간격을 두고 배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 제주 47번 확진자 발생... "울산 접촉자"

### 어제 판정... 도, 역학조사중 40번 확진자 추가동선도 나와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4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오후 10시10분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주 47번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즉각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47번 확진자 A씨가 확진 판정에 앞서 이날 오후 3시30분쯤 울산시로부터 울산시 확진자(확진자 번호 확인 중)의 접촉자로 분류돼 관리이관을 통보받음에 따라 신원 파악에 나섰다.

이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검체를 채취한 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A씨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 방역당국은 A씨가 방문한 장소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이날 도는 지난 달 29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제주 40번 확진자 B씨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초 발표된 동선 외에 추가된 B씨의 이동경로는 이도네보리밥집(25일 접촉자 1명), 토리혜어 신제주점(27일 접촉자 없음), 안전셀프

제자장(27일 접촉자 1명), 망고홀릭 애월해안도로점(29일 접촉자 없음) 등이다.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추가 분류함에 따라 당초 52명이었던 접촉자는 2일 오전 9시 기준 총 56명으로 늘었다. 도는 52명을 격리 조치 했으며 현재 4명은 신원 파악 중이다.

이와함께 도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은평구 175번 확진자의 제주 방문 사실을 통보 받고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은평구 175번 확진자 C씨는 지난 달 22일부터 27일까지 제주를 방문했고, 25일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도 후인 지난 29일 제주 38번 확진자(28일 확진 판정)의 접촉자로 통보받아 은평구 소재 청구성심병원에서 검사 후 30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 방역당국은 C씨의 접촉자 7명에 대해 격리조치를 완료한 데 이어 방문지 17곳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C씨가 제주에서 머무는 동안 접촉한 인원은 협재게스트하우스(24-25일 투숙객 3명), 스티시애월(25일 손님 1명), 간장을 품은 소라게(25일 투숙객 1명), 엠버호텔 센트럴(26-27일 직원 1명), 택시기사 등 총 7명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버자야그룹, 제주도 상대 손해소송 취하

### 사업 중단 배상 분쟁 일단락

제주 예래단지 개발사업 사업자였던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버자야그룹이 지난 달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버자야 그룹은 2008년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휴거단지 부지(74만1200㎡)에 2017년까지 2조 5000억원을 투입해 50층 규모 호텔과 카지노, 주거형 휴양단지를 짓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해왔다.

2013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토지주들이 사업이 당초 제시된 방향(유원지)과 다른 성격으로 추진된다고

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대법원이 국토계획법상 유원지로 지정된 예래 휴양휴거단지 사업에 주민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버자야 그룹은 JDC의 권유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3238억원대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6월 30일 JDC가 버자야 측에 1250억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양측은 이를 수용했다.

이어 남아있던 제주도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철회하면서 사업 중단으로 인한 배상 분쟁이 일단락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감귤 상품종 분양

#### 2021년 봄 출하예정 모둠 분양

-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모둠입)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유주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농장주소: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농장전화: 010-2691-1883

농장등록번호: 18-2003-20-09

### 감귤모듬

#### 아스미 4, 5년생

당 17.4박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타 만감류에 비해 소득이 월등합니다. 잘나가는 레드향과 비교해도 최소 2-3배의 소득이 가능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저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단가가 높습니다. (레드향은 해저리가 심함) 주요 만감류는 거의 포화상태인데,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입니다.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거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모듬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카라향	1, 4년생	·궁천변이	1, 2년생
·유라실생	2,3,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농장등록번호: 18-2003-20-08

010-2699-2355

###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농장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모듬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 동구치과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법병원 시청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